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4, No. 6 pp. 90-104, 2023

https://doi.org/10.5762/KAIS.2023.24.6.90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모의 일-가정 갈등, 모의 전반적 행복감, 아동의 문제행동, 아동의 학교적응에 대한 구조적 관계

김영경
경북대학교 간호학과

A Study on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the Mother's Work-Family Conflict, Mother's Overall Happiness, Children's Problem Behavior, and Children's School Adjustment

Young Kyoung Kim
Department of Nurs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가 가정에서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인 점을 감안하여, 부모 중 특히 어머니의 일-가정 갈등이라는 환경적 변인과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과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매개효과를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PSKC)의 11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의 일-가정 갈등은 아동의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모의 일-가정 갈등은 모의 전반적 행복감에 유의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모의 일-가정 갈등은 아동의 문제행동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모의 전반적 행복감은 아동의 학교적응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아동의 문제행동은 아동의 학교적응에 유의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모의 일-가정 갈등과 아동의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모의 전반적 행복감과 아동의 문제행동은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자녀가 모와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 모 자신에 대한 내적 행복감과 아동의 문제행동이 긍정적으로 개선될 때 학교부적응 문제를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Abstract Considering that the higher grades of elementary schools are when the mothers are more affected in their families,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 of the perceived happiness of the mothers and the problem behaviors of the childre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nvironmental variable of the mothers' work-family conflict of the mothers and the school adjustment of the children. The data from Year 11 of PSKC of the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were analyzed.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work-family conflict of mothers did not significantly impact the children's school adjustment. Second, the mothers' work-family conflict had a significant and negative impact on mothers' overall happiness. Third, the mothers' work-family conflict had a significant and positive impact on the children's problem behaviors. Fourth, the overall happiness of the mothers had a significant and positive impact on the children's school adjustment. Fifth, the children's problem behavior harmed the children's school adjustment. Sixth,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ork-family conflict between the mothers and the children's school adjustment, the overall happiness of the mothers and children's problem behaviors of the children had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These findings suggest that when there is a conflict with the mother in a child counseling scenario, the interventions related to problem behaviors will reduce the issue of school maladjustment.

Keywords : Mother's Work-Family Conflict, Mother's Overall Happiness, Children's Problem Behavior, Children's School Adjustment, Mediate Effect

*Corresponding Author : Young Kyoung Kim(Kyungpook National Univ.)
email: sagacious2021@naver.com
Received March 28, 2023 Revised April 18, 2023
Accepted June 2, 2023 Published June 30, 2023

1. 서론

아동의 학교적응 문제에 있어 아동과 부모와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연관성을 갖는다. 특히 어머니는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1]. 이는 자녀들이 어머니의 행동을 모델링하는 경향이 있고 가정의 분위기나 행동양식 등은 아동의 생활습관이나 행동양식, 대인관계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며[2], 이러한 부모-자녀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변인 및 아동 변인은 부모-자녀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자녀와 어머니의 유대감은 모-자녀 간의 관계의 질을 결정함과 더불어 자녀의 성장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아동이 사회적으로 잘 적응하여 보다 행복하고 조화로우며 원만한 삶을 살아가는 바탕이 된다고 보고되고 있다[3,4].

아동의 학교적응은 학령기 뿐만 아니라 성인기의 심리사회적 특성의 중요 예측변인이며, 학령기의 학교적응은 성인기의 교육적인 성취를 예측하는 것으로 밝혀졌다[5,6].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학교적응의 경우 부모 변인이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그동안 선행연구들은 부모 변인 가운데 양육태도[7], 부부 관계의 질[8], 부모공감[9] 등의 변인이 자녀의 학교 생활 적응에 있어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모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양육 특성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변인인 일-가정 양립 시 갈등이 어떤 구조적인 관계를 통하여 초등학교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일-가정 갈등(work-family conflict)이란 가정과 직장에서 부과되는 요구가 양립할 수 없을 경우 나타나는 부담을 뜻한다[10]. 일-가정 갈등이 지속될 경우 우울, 양육스트레스, 불안 등과 같은 심리적 건강이 저해되며[11,12], 자녀와의 관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13]. 특히 일-가정 갈등으로 인하여 맞벌이 가정의 어머니들은 자녀와의 불안한 정서적 애착관계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게 되며, 자녀와의 많은 시간을 갖지 못한 부분에서 시작된 애착관계의 죄책감에 대해 어머니는 자녀와의 관계성 회복을 하기 위하여 보상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때 대부분의 부모는 물질적 보상으로 대처하게 되는 경향이 높다고 조사되었으며[14,15], 이는 아동의 외적 행동측면에서 부정적 행동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리적 상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결국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부적응이 이루어지게 되며[12,13],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심리적 영향이 남아 있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어머니가 취업함으로써 아동에게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어머니가 직장에 있는 시간에 비례하여 어머니와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아동들의 내적불안이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이다[14]. 아동들이 가지는 다양한 심리적 불안은 아동의 인간성 형성과 학습 성취에 곧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어머니의 취업으로 하루의 대부분을 가정이 아닌 외부에서 보내게 되는 맞벌이 가정의 아동들은 어머니와 함께 하는 시간의 불충분으로 사랑의 결핍과 외로움에 시달리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16,17]. 즉, 아동은 일-가정 갈등으로 인하여 부모와의 대화와 의사소통이 부족하게 되고, 정신적 소외감을 느끼게 되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아동들은 최근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학교폭력 문제에 있어서도 그 피해자가 되거나 불량배에 휩쓸려 가해자가 될 위험이 생길 수 있다. 이렇듯, 어머니의 일-가정 갈등은 위와 같이 아동의 심리적 불안정 상태로 이어져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14,17], 이는 학교에 대한 부적응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일-가정 갈등과 아동의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아동의 문제행동이 주는 매개효과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모든 직장여성이 일/가정 갈등으로부터 같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지는 않는다[18]. 이는 일-가정 갈등이라는 부정요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전이이론(positive spillover)의 역할강화 요인으로 설명되는 정서지능, 기질, 성격특성, IQ 등의 긍정자원이 여성의 개인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여[19,20], 행복감을 높이는 기제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복감은 삶의 다양한 영역의 성공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이는 긍정적인 정서와 기분이 긍정적인 자기 및 타인 표상, 그리고 친사회성을 촉발할 뿐 아니라,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느끼고, 생각하며, 행동하게끔 이끌기 때문이다. 특히 모의 행복감은 자신의 양육행동뿐만 아니라 자녀 발달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다. 즉, 직장여성은 과중한 역할수행으로 어려움을 갖지만 동시에 개인 고유의 긍정자원을 통해 경제적 안정과 개인성취로 이어진 경험과 기회로 삶의 행복감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21].

이러한 행복감은 자녀에게 안정적이고 긍정인 생활로 인하여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21]. 즉, 어머니의 심리적인 안정감으로 인하여 생활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때 삶에 대해 스스로 긍정적 인식이 이루어지게 되며, 이는 자녀에게 모델링이 되어 자녀의 대인관계와 학교생활 및 사회적 삶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22,2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가 가정에서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인 점을 감안하여[24], 부모 중 특히 어머니의 일-가정 갈등이라는 환경적 변인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러한 부모의 일-가정 갈등과 아동의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모의 전반적 행복감과 아동의 문제행동 중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각각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아동의 긍정적인 학교생활적응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하고 실제적인 제언이 가능할 것이며, 초등학교 고학년의 조사 자료는 중학교에 대한 진학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아동기의 시점에서 학교현장의 올바른 지도와 실태를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동시에 학교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천적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이론적 배경

2.1 모의 일-가정 갈등

일-가정 갈등(work-family conflict)은 직장에서의 역할과 가정에서의 역할이 양립할 수 없어 일어나는 역할 간 갈등을 나타낸다[10]. 이를 일-가정 갈등이라 명명하며, 구체적으로 취업모의 경우 일과 가정 영역에서 각각 발생하는 역할에 대한 책임이 있으나, 개인의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로 인해 둘을 함께 수행하는 데 긴장이 발생하거나 스트레스, 과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Greenhaus와 Buetell(1985)은 일-가정 갈등을 원인에 따라 시간 기반 갈등, 긴장 기반 갈등, 행동 기반 갈등으로 구분하였다[10]. 첫 번째로, 시간 기반 갈등은 제한된 시간 자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으로, 한 영역에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보내는 시간이 많아 다른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어 역할 수행에 긴장이나 방해를 유발하는 갈등의 유형이다. 두 번째로 긴장 기반 갈등은 한 영역에서 얻을 수 있는 긴장이나 스트레스, 피로도가 다른 역할을 수행할 때 방해가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행동 기반 갈등은 직장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 사용하던 방식이 가정에서 자녀와의 문제를 해결할 때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한 영역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효과적이었던 행동이 다른 영역에서는 효과적이지 않아 발생하는 갈등을 말한다. 이러한 세 가지 형태의 일-가정 갈등은 부모의 우울이나 양육스트레스, 안녕감과 같은 개인의 심리적 건강에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며[25], 부모-자녀 관계의 질, 양육행동, 상호작용, 자녀의 정신건강이나 문제행동과 같은 양육관련 변인들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6,27].

2.2 모의 전반적 행복감

행복감이란 전반적인 삶에 관한 욕망이나 욕구가 충족되어 불안감 또는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지속적으로 느끼는 만족감과 마음의 평화, 충만함 등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로 규정할 수 있다[28]. 이는 주관적인 측면이 강조된 개념으로, 자기의 생활에 관한 정의적, 인지적인 평가이며, 개인의 경험에 따른 내적인 주관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심리적인 판단이다[29]. 모의 행복감은 개인이 자각하는 인지적 측면과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정서 경험에 의한 정서적 측면을 포괄한다고 하였다[30]. 종합해보면 모의 행복감이란 자신의 상황에 관해 인지 및 정서적 평가를 통해 느껴지는 주관적인 안녕감으로 개인의 정서 경험에 근거한 심리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행복한 사람들은 가정이나 건강, 대인관계, 직장 등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다[31]. 또한 그들은 자기의 강점을 발달시키며, 현재 하는 일에 몰입할 줄 알고, 행복의 비결을 찾아내기 위하여 노력할 뿐 아니라, 주변인과도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한다. 어머니가 행복을 느끼는 것은 자녀의 정서 및 사회적인 능력의 발달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32]. 다시 말해, 어머니들이 행복을 느낄 때 자녀들과의 유의미한 관계 형성이 가능할 것이고, 자녀들이 긍정적인 심리적, 정서적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서 및 사회적 발달을 촉진시킨다.

2.3 아동의 문제행동

아동의 문제행동은 아동의 발달적 규준, 아동이 속한 집단의 사회문화적 규준, 사회적 상황이나 환경적 상황 같은 상황적 규준 등이 고려되며[33], 넓은 의미에서 아동의 문제행동은 일상생활에서 보이는 심리 사회적 부적응으로 사회적 기대나 규범에서 벗어난 행동을 의미한다[34].

Achenbach와 Edelbrock(1991)에 의하면 문제행동

은 갈등이 표출되는 방향에 따라서 그 유형은 외현화 문제(externalizing problem)와 내면화 문제(internalizing problem)로 구별된다고 했다[35]. 외현화 문제행동이란 아동이 자신의 행동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해 발생되는 문제로 공격성이나 과잉운동, 도벽, 거짓말, 타인을 못살게 구는 등의 행동적인 문제를 의미하며, 내면화 문제행동이란 자기의 행동을 지나치게 억제하거나 본인을 적절히 표현하지 못하는 위축행동 및 불안 행동으로 우울이나 두려움, 외로움 등의 정서적인 문제행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행동은 어떤 특정시기의 양적인 문제로 다른 발달시기에서는 정상적으로 해결되기도 하고 문제의 정도가 덜거나 다른 상황에서는 발달상의 손상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문제행동이 적응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문제행동을 일컫는 말로 정서장애(emotional disturbance), 이상행동(abnormal behavior), 부적응 행동(maladaptive behavior), 행동 장애(conduct disorder) 등 문제행동(problem behavior)의 양상은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하게 표현되며, 이러한 용어의 다양성은 학문 분야의 특성과 문제행동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 의해 비롯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문제행동의 정의에 대한 견해는 완전히 일치하기 어렵다[33].

2.4 아동의 학교적응

학교적응이란 Lynch와 Cicchetti(1997)는 학교생활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교사 및 교우와의 관계가 원만하여 학교 규범에 맞게 자기를 조절하고 학교에서 발생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36]. 또한 학생이 학업에서 성취를 거두고 학교생활에서 조화롭고 성공적인 관계를 형성시킴으로써 교사나 다른 학생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사회 정서적 행동 면에서 바람직하게 학교규범에 순응하는 정도를 의미한다[37]. 학교적응 여부는 현재의 삶뿐 아니라 성인기 이후의 삶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며[38], 사회인으로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심리적 안녕감을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39].

학교에서 아동들은 규칙이나 환경, 분위기, 학습과정과 학습내용, 또래 및 교사, 교내의 구성원들과 조화를 이루며 학습기회를 수용하고 본인을 위해 활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아동에게 있어서 학교적응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40]. 이정윤과 이경화(2004)에 따르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수록 학교의 규칙 및 질서를 잘 지키며,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가 원만하며 조화로운 학교생활을 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학교생활에 만족하게 됨을 주장하였다[41]. 그러나 권혜진과 성미영(2014)의 연구에서는 학교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는 아동의 경우 소외, 불안, 절망감과 함께 자신감이 결여되고, 정서적 문제나 실패감, 적대감 등이 쌓여 부적응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42].

2.5 선행연구

2.5.1 모의 일-가정 갈등과 아동의 학교적응

직장이 있는 어머니는 직장과 가정 사이에서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자녀문제로[43], 재직 중인 어머니는 일-양육 사이에 계속해서 갈등을 경험하고 양육에 온전히 전념하지 못하는 본인의 현실에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지만[44], 여전히 직장 재직 여성을 위한 사회적 제도 및 정책이 부족하다[45]. 이러한 모의 일-가정 갈등은 자녀에게 학교생활 및 학업수행 적응, 교사 적응, 또래 적응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44,46,47].

취업한 어머니의 일과 양육에서의 갈등이 초등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일-양육 갈등을 겪는 취업모의 자녀가 학교적응 중 또래관계 적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48]. 반면 취업모가 일-가정 향상을 경험하는 경우에는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를 형성하여 유아가 외현화 문제행동을 덜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49]. 연은모와 최효식(2019)의 연구에서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의 일-가정 갈등과 학교적응의 영향관계를 살펴보았는데, 분석결과 어머니의 일-가정 갈등은 자신의 양육효능감 및 집행기능곤란을 매개로 자녀의 학교적응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50].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일-가정 갈등으로 야기되는 절대적인 시간과 에너지, 자원의 부족 등은 양육효능감을 감소시킴으로써 효과적인 양육 행동을 저해하고 자녀의 계획-조직화, 정서 및 행동통제, 부주의의 집행기능곤란을 증가시켜 학교적응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모의 일-가정 갈등이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2.5.2 모의 일-가정 갈등과 모의 전반적 행복감

직장여성을 둘러싼 삶의 영역에서 직장과 가정의 영향은 서로 상관관계를 이룬다. 이은희(2000)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쪽 배우자의 갈등이 다른 쪽 배우자의 긴장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51], 맞벌이부부를 대

상으로 한 연구는 직장의 일과 가정생활은 서로 영향을 미치며, 이에 따른 부정적 정서는 생활만족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52]. 또한 Byron(2005)의 연구에서는 가정에서의 갈등은 직장에서의 업무수행능력 저하, 업무태만, 우울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25,53], 직장에서 발생된 갈등은 가정생활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일-가정 갈등은 여러 가지 요인을 동반할 뿐만 아니라 한 영역에서 스트레스나 만족이 다른 영역에서의 갈등이나 만족으로 전이됨을 알 수 있다[54,55].

신정원(2012)의 연구에서는 직장에 종사하는 여성이 일-가정 갈등이 높을수록 행복감을 낮게 지각한다고 보고하였고[56], 이러한 결과는 직장보다는 가정에 가치를 크게 두어 가정에서 발생한 일이 보다 크게 지각되어 직장업무에 영향을 주고, 이러한 부정적 전이가 행복감을 낮추는 기제로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직장에서 갈등을 겪는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의 심리적 안녕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57]. 또한, 취업모가 가사에 대한 부담을 느끼거나 지나친 책임을 강요받는 경우 우울이나 죄책감을 느끼며 심리적 건강이 낮게 나타났다[58]. 이와 같이 일-가정 갈등 수준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부정적인 정서가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행복감 수준이 낮아진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2.5.3 모의 일-가정 갈등과 아동의 문제행동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는 현대 사회에서 모의 일-가정 갈등은 아동의 발달에 중요한 요인이므로 모의 일-가정 갈등이 아동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모가 일과 가정을 병행하며 갈등을 느끼는 경우 아동의 정서적 증상, 수행 문제, 과잉행동, 부주의, 또래관계 문제 등이 나타났으며, 특히 취업 일-가정 갈등을 지속적으로 경험하였을 때 아동의 정서 및 문제 행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27,49,59].

이와 더불어, 어머니의 취업이 초등학생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도 존재한다. 양경수(2002)의 연구에서는 취업모의 자녀들이 과잉행동을 많이 보였으며[60], 이와 유사하게 취업모의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아동이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느끼고 과잉행동, 부적절한 감정표현과 같은 정서행동문제를 보였고, 사회적인 부적응을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1,62]. 그러나 어머니의 직업만족도가 높은 경우에는 여아 스스로 불안, 위축, 미성숙 행동을 적게 보인다고 지각하였다[63]. 종합하면, 모의 일-가정 갈등은 모와 자녀가 공유하는 환경에 영향을 주며,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 학령초기 아동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2.5.4 모의 전반적 행복감과 아동의 학교적응

모의 행복감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연구들이 있다[64-66]. 먼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64]에 의하면 모의 심리적인 안녕감은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며, 모의 심리적 안녕감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생활전반에 만족도가 높을 경우 삶에 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이는 자녀에게 모델링이 되어[66], 긍정적인 대인관계 및 문제해결방식을 습득하며 학교생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또한 저소득층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65]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의 심리적인 안녕감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들로 비추어 볼 때 모의 행복감이 높아질수록 아동의 학교적응력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모의 전반적인 행복감은 아동의 학교적응에 있어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예측할 수 있다.

2.5.5 아동의 문제행동과 아동의 학교적응

아동의 문제행동과 학교적응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에서는 아동의 문제행동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밝혀왔다[67-69].

박성연과 강지흔(2005)의 연구에서 아동의 공격성이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는데[70], 남아의 경우 개인의 감정이나 관계를 손상시키고 위협을 하는 등의 행위로 해를 주는 관계적 공격성과 직접적으로 신체적 또는 언어적 공격을 가하는 주도적 공격성을 많이 보일수록 학교적응을 어려워하였다. 또한 여아의 경우 다른 사람의 공격적 행동에 대응하여 보복적으로 공격을 가하는 반응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 주도적 공격성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보여 성별 간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 공격성의 유형이 다르게 나타났다. 그 밖의 다른 연구에서도 아동의 공격성은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71,72]. 또한 박용한(2014)은 학생들의 문제행동이 학교적응을 부적으로 예측한다고 보고하였다[73].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의집중 문제는 주의력결핍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학교적응에 문제를 나타내며, 학생들의 사회적 위축은 교우관계와 교사관계를 포함한 대인관계

에 영향을 미치고[74], 우울 또한 학교적응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고하였다[75]. 이에 아동의 문제행동은 아동의 학교적응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본 연구는 모의 일-가정 갈등이 모의 전반적 행복감, 아동의 문제행동과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모의 일-가정 갈등과 아동의 학교적응 간 관계에서 모의 전반적 행복감과 아동의 문제행동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Fig.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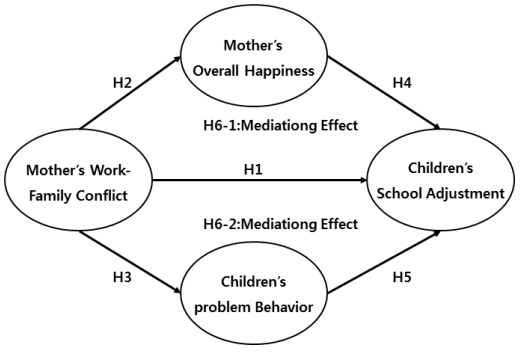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본 연구의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H1: 모의 일-가정 갈등은 아동의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모의 일-가정 갈등은 모의 전반적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모의 일-가정 갈등은 아동의 문제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모의 전반적 행복감은 아동의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 아동의 문제행동은 아동의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6-1: 모의 일-가정 갈등과 아동의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모의 전반적 행복감은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H6-2: 모의 일-가정 갈등과 아동의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아동의 문제행동은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3.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의 11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76]. 한국아동패널은 층화다단계 표본추출법을 사용하여 2008년 출생한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표본을 구축하였다. 2008년부터 매년 조사가 이루어지는 종단연구로, 본 연구에서 활용한 11차년도(2018년)는 패널 대상 아동들이 초등학교 4학년이 되어 고학년이 시작되는 시기이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11차년도(2018년) 조사에 참여한 학생 2,150명 중 본 연구에 사용된 연구변인에 공통적으로 무응답자(1,499명)인 경우를 제외한 651명의 아동자료만을 분석하였다. 남아 335명(51.5%), 여아 316명(48.5%)이었다.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41.0세이며, 어머니의 최종 학력은 4년제 대학교 졸업(5년제 포함)이 235명(36.1%)로 가장 많았고, 2~3년제 대학 졸업 207명(31.8%), 고등학교 졸업 171명(26.3%), 대학원 졸업 29명(4.5%), 중학교 졸업 2명(0.3%) 순이었으며 무응답은 7명(1.1%)이었다.

3.3 측정도구

3.3.1 모의 일-가정 갈등

모의 일-가정 갈등을 측정하기 위해 Marshall & Barnett(1993)의 문항을 한국아동청소년패널(2018)에서 번역한 모의 일-가정 갈등 문항이 사용되었다[76,77]. 이 척도는 부모 중 어머니가 보고하는 형식이며, 일-가정 갈등 9문항, 일-양육갈등 6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문항의 예로는 '일과 가정생활 양립의 어려움으로 인해 느끼는 스트레스, 다중역할 갈등', '일과 양육에서 느끼는 갈등' 등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모의 일-가정 갈등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모의 일-가정 갈등에 대한 신뢰도(Cronbach's α)는 모의 일-가족갈등 0.913, 모의 일-양육갈등 0.887, 모의 일-가정 갈등 전체 0.939로 나타나 내적일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3.3.2 모의 전반적 행복감

모의 전반적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해 Lyubomirsky & Lepper(1999)의 문항을 사용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2018)의 척도가 사용되었다[76,79]. 이 척도는 어머니가 보고하는 형식으로, 총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예로는 '전반적으로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어떤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아주 행복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개의치 않고 즐겁게 지내는 편이다. 나는...', '어떤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아주 불행하다. 특별히 우울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게 보인다. 나는...'등으로 총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매우 행복하지 않다(1점)'부터 '매우 행복하다(7점)'까지 7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모의 전반적 행복감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모의 전반적 행복감에 대한 신뢰도(Cronbach's α)는 0.913으로 나타나 내적일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3.3.3 아동의 문제행동

아동의 성취압력을 측정하기 위해 오경자와 김영아(2010)의 척도를 사용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2018)의 척도가 사용되었다[76,80]. 아동의 문제행동은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분류하였으며, 내재화 문제행동은 불안/우울, 위축/우울, 신체증상, 외현화 문제행동은 규칙위반, 공격행동으로 분류하였다. 내재화 문제행동의 예로는 '울음, 긴장, 자살에 대한 이야기, 비활동적 행동, 어지러움증, 피곤함, 메스꺼움'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외현화 문제행동은 '규율 위반, 가출, 무단결석, 말다툼, 싸움, 폭력성'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항상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지각한 문제행동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신뢰도(Cronbach's α)는 내재화 문제행동 중 불안/우울 0.879, 위축/우울 0.867, 신체증상 0.854, 내재화 문제행동 전체 0.859로 나타났으며, 외현화 문제행동은 규칙위반 0.783, 공격행동 0.750, 외현화 문제행동 전체 0.799로 나타나 내적일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3.3.4 학교적응

학교적응을 측정하기 위하여 민병수(1991)에서 사용한 문항을 본 연구에 맞도록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2018) 척도가 사용되었다[76,78]. 이 척도는 아동이 보고하는 형식이며,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적응은 학습활동(5문항), 학교규칙(5문항), 교우관계(5문항), 교사관계(6문항) 총 4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학교적응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아동의 학교적응에 대한 신뢰도(Cronbach's α)는 '학습활동' 0.728, '학교규칙' 0.730, '교우관계' 0.680, '교사관계0.884, 학교적응 전체 0.897로 나타나 내적일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3.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26.0과 AMOS 2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모의 일-가정 갈등, 모의 전반적 행복감, 아동의 문제행동, 아동의 학교적응 변수의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를 산출하였으며, 확인적 요인분석(CFA) 분석을 실시하여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주요 변수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의 일-가정 갈등, 모의 전반적 행복감, 아동의 문제행동, 아동의 학교적응 간의 영향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4.1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본 연구의 측정도구인 모의 일-가정 갈등의 일-가족 갈등, 일-양육 갈등, 모의 전반적 행복감, 아동의 문제행동 중 내재화 문제행동의 불안우울, 위축우울, 신체증상, 외현화 문제행동의 규칙위반, 공격행동, 아동의 학교적응의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 변수의 타당도 분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행하였다. 확인적요인분석 모형 검증을 위한 적합도를 Table 1과 같이 살펴본 결과, $\chi 2$=1599.160, df=743, GFI=0.888, AGFI=0.871, CFI=.0.933, IFI=0.934, RMR=0.028, RMSEA=0.043, CMIN/DF=2.152 등의 적합도가 GFI, AGFI, CFI, IFI는 0.8 이상, RMR은 0.05 이하, RMSEA는 0.08 이하로 나타나 모든 지수들이 권장수준에 부합한 것을 알 수 있다[81]. 또한 본 연구에서는 요인부하량(λ)에 대한 기준을 0.5 이상을 양호한 기준으로 하였으며, 학교적응의 학습활동4, 학교규칙7, 교우관계14, 교사관계21은 요인부하량(λ)이 0.5 미만으로 나타나 제거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는 Table 2와 같이 최종 항목들이 요인부하량(λ)이 0.532에서 0.958로 나타나 각 요인에 관한 타당성이 양호한 것을 검증하였다. 또한 모의 일-가정 갈등, 모의 전반적 행복감, 아동의 문제행동, 아동의 학교적응의 개념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CR) 및 평균분산추출지수인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값이 각각 기준치인 0.7이상, 0.5이상으로 나타나

모든 측정도구에 관한 내적일관성을 확인하였다[82].

Table 1. Model fit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hi 2(p)$	df	GFI	AGFI	CFI	IFI	RMR	RMSEA
1599.160 (p=0.000)	743	.888	.871	.933	.934	.028	.043

Table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tudy model results

Path			S.T β	S.E.	t-value	Concept reliability	AVE
Work-family conflict	→	WFC 1	0.761	Fix	-	0.936	0.622
	→	WFC 2	0.717	0.050	18.539***		
	→	WFC 3	0.828	0.046	21.944***		
	→	WFC 4	0.791	0.046	20.797***		
	→	WFC 5	0.706	0.052	18.223***		
	→	WFC 6	0.755	0.046	19.682***		
	→	WFC 7	0.767	0.046	20.063***		
	→	WFC 8	0.701	0.052	18.092***		
	→	WFC 9	0.617	0.056	15.660***		
Work-child rearing conflict	→	WCRC 1	0.592	Fix	-	0.914	0.645
	→	WCRC 2	0.652	0.087	13.395***		
	→	WCRC 3	0.870	0.094	16.185***		
	→	WCRC 4	0.791	0.076	15.281***		
	→	WCRC 5	0.798	0.083	15.365***		
	→	WCRC 6	0.852	0.093	15.998***		
Mother's overall happiness	→	MOH 1	0.939	Fix	-	0.892	0.676
	→	MOH 2	0.958	0.023	45.777***		
	→	MOH 3	0.796	0.033	28.620***		
	→	MOH 4	0.711	0.038	23.045***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	Anxiety depression	0.532	Fix	-	0.767	0.528
	→	Atrophy depression	0.579	0.111	10.190***		
	→	Somatic symptoms	0.719	0.146	11.388***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	Rule transgressions	0.678	Fix	-	0.715	0.558
	→	Aggressive behavior	0.569	0.093	11.367***		
Learning activity	→	LA 1	0.693	Fix	-	0.860	0.607
	→	LA 2	0.657	0.071	13.493***		
	→	LA 3	0.665	0.062	13.606***		
	→	LA 5	0.543	0.076	11.505***		
School rules	→	SR 6	0.671	Fix	-	0.906	0.707
	→	SR 8	0.651	0.069	13.695***		
	→	SR 9	0.704	0.066	14.575***		
	→	SR 10	0.670	0.069	14.027***		
Peer relationship	→	PR 11	0.650	Fix	-	0.852	0.590
	→	PR 12	0.549	0.089	11.285***		
	→	PR 13	0.626	0.078	12.513***		
	→	PR 15	0.570	0.080	11.636***		
Teacher relationship	→	TR 16	0.742	Fix	-	0.926	0.715
	→	TR 17	0.722	0.072	17.400***		
	→	TR 18	0.818	0.067	19.682***		
	→	TR 19	0.778	0.059	18.767***		
	→	TR 20	0.674	0.084	16.197***		

***p<.001

4.2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의 주요변수인 모의 일-가정 갈등의 일-가족 갈등, 일-양육 갈등, 모의 전반적 행복감, 아동의 문제행동 중 내재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 아동의 학교적응의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는 다음의 Table 3과 같다.

Table 3. Correlation

Variables		1		2	3		4			
		1-1	1-2		3-1	3-2	4-1	4-2	4-3	4-4
1	1-1	1								
	1-2	.669**	1							
2		-.249**	-.209**	1						
3	3-1	.237**	.240**	-.347**	1					
	3-2	.189**	243**	-.234**	.559**	1				
4	4-1	-.250**	-.276**	.287**	-.305**	-.463**	1			
	4-2	-.260**	-.281**	.291**	-.318**	-.428**	.552**	1		
	4-3	-.228**	-.257**	.363**	-.329**	-.253**	.498**	.598**	1	
	4-4	-.255**	-.217**	.212**	-.324**	-.262**	.412**	.460**	.471**	1
Mean		2.27	2.43	3.18	2.15	2.16	3.09	3.33	3.23	3.19
SD		0.735	0.776	0.988	0.579	0.673	0.497	0.451	0.446	0.593
skew		.317	.143	-.590	.106	.208	-.288	-.078	-.165	-.448
kurtosis		-.317	-.522	.813	-.315	-.372	.638	-.306	-.128	-.181

1=Work-family conflict, 1-1=Work-family conflict, 1-2=Work-Child Rearing Conflict, 2=Mother's Overall Happiness, 3=Children's problem Behavior, 3-1=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3-2=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4=Children's School Adjustment, 4-1=learning activity, 4-2=School rules, 4-3=Peer relationship, 4-4=Teacher relationship

**p<.01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모의 전반적 행복감은 일-가족 갈등(r=-.249, p<.01), 일-양육 갈등(r=-.209, p<.01)에 부적인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일-양육 갈등은 내재화 문제행동(r=.240, p<.01)과 외현화 문제행동(r=.243, p<.01)에서 더 높은 정적인 상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학교적응에 대해서는 학습활동(r=-.276, p<.01), 학교규칙(r=-.281, p<.01), 교우관계(r=-.257, p<.01)가 일-가족 갈등보다 일-양육 갈등과의 상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교사관계에 대해서는 일-가족 갈등(r=-.255, p<.01)이 일-양육 갈등(r=-.217, p<.01)보다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 전반적 행복감에 대해서는 학교적응의 하위변인 중 교우관계(r=.363, p<.01)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문제행동 중 내재화 문제행동은 학교적응의 교우관계(r=-.329, p<.01), 외현화 문제행동은 학습활동(r=-.463, p<.01)과 부적인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변인인 모의 일-가정 갈등의 일-가족 갈등,

일-양육 갈등, 모의 전반적 행복감, 아동의 문제행동 중 내재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 아동의 학교적응의 각 하위변수의 정규성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왜도는 절대값 3미만, 첨도는 절대값 10미만으로 나타나는지 분석해본 결과 왜도 0.078~0.590, 첨도 0.128~0.813으로 나타나 자료의 정규분포성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81].

4.3 가설검증

본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실시하였다. 먼저 구조방정식 모형에 대한 연구모형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다음의 Table 4와 같으며, $\chi 2$, GFI, AGFI, CFI, IFI, RMR, RMSEA, $\chi 2$/df 등의 적합도가 권장수준에 부합하였다[81].

Table 4. Research Model f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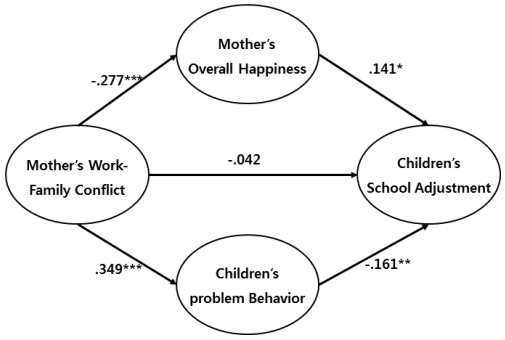
$\chi 2(p)$	df	GFI	AGFI	CFI	IFI	RMR	RMSEA
164.483 (p=0.000)	49	.959	.935	.969	.970	.049	.061

또한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의 표준화 계수를 Table 5에서 살펴본 결과, 모의 일-가정 갈등은 아동의 학교적응(β=-0.042, p>.01)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의 전반적 행복감(β=-0.275, p<.001)과 아동의 문제행동(β=0.349, p<.001)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의 전반적 행복감(β=0.141, p<.05)과 아동의 문제행동(β=-0.161, p<.01)은 아동의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Validation results of the hypothesis

Hypothesis			S.T β	S.E.	C.R.	P
Mother's work-family conflict	→	Children's school adjustment	-.042	.028	-0.772	.440
Mother's work-family conflict	→	Mother's overall happiness	-.275	.066	-6.228***	.000
Mother's work-family conflict	→	Children's problem behavior	.349	.038	6.848***	.000
Mother's overall happiness	→	Children's school adjustment	.141	.049	2.175*	.030
Children's problem behavior	→	Children's school adjustment	-.161	.041	-2.760**	.006

***p<.001



***p<.001, **p<.01, *p<.05

Fig. 2. Model Result

다음 Table 6은 모의 일-가정갈등과 아동의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모의 전반적 행복감과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 방법으로 연구모형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총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모의 일-가정갈등은 아동의 학교적응에에 직접효과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고(p>.05), 간접효과와 총효과는 유의수준 p<.05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모의 전반적 행복감과 아동의 문제행동이 완전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6. Indirect effect analysis of mother's overall happiness and children's problem behavior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Path factor	P	Path factor	P	Path factor	P
Mother's Work-Family Conflict	Children's School Adjustment	-.042	.440	-.053*	.011	-.095**	.003

***p<.001, **p<.01, *p<.05

본 연구에서는 모의 일-가정갈등과 아동의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모의 전반적 행복감과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매개효과를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Sobel-test를 실시하였고[83], 분석결과는 Table 7과 같다. 분석결과, 모의 전반적 행복감에 대한 매개효과는 모의 일-가정갈등과 아동의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Z-value=-2.025, p<.05). 또한,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매개효과는 모의 일-가정갈등과 아동의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Z-value=-2.559, p<.05).

Table 7. Sobel-test result of mother's overall happiness and children's problem behavior

Independent variable	Parameter	Dependent variable	Sobel-test	
			Z-value	P
Mother's work-family conflict	Mother's overall happiness	Children's school adjustment	-2.025*	.042
Mother's work-family conflict	Children's problem behavior	Children's school adjustment	-2.559*	.010

***p<.001

5. 결론

본 연구는 모의 일-가정 갈등, 모의 전반적 행복감, 아동의 문제행동, 아동의 학교적응에 대한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를 위해 한국아동패널(2018) 11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주요 변인인 모의 일-가정 갈등, 모의 전반적 행복감, 아동의 문제행동, 아동의 학교적응의 결측치를 제외한 651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76]. 자료분석은 SPSS 26.0과 AMOS 2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모의 일-가정 갈등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모의 일-가정 갈등은 아동의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박새롬, 홍예지와 이강이(2020)의 연구에서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자녀교육 갈등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한 결과와 일치한다[84]. 하지만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일을 하는 어머니의 일-가정 갈등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48,50]. 이는 모의 일-가정 갈등 요인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다른 요인을 통해 순차적으로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아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모의 일-가정 갈등이 모의 전반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모의 일-가정 갈등은 모의 전반적 행복감에 유의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의 일-가정 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모의 전반적인 행복감 수준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신정원(2012)과 Olowodunoye(2021)의 연구에서 직장에 종사하는 어머니의 일-가정 갈등이 높을수록 행복감 혹은 심리적 안녕감을 낮게 지각한다고 보고한 결과와 일맥상통한다[56,57]. 따라서 최근 보편화 되고 있는 여성들의 직장 및 가정의 양립에 따른 업무 과정의 문제를 사회적 차원에서 인지하여 여성의 사회활동 영역과 능력 발휘를 통해 행복감을 높이는 다양한 제도적 차원의 시도가 요구됨을 시사한다.

셋째, 모의 일-가정 갈등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모의 일-가정 갈등은 아동의 문제행동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의 일-가정 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문제행동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Vahedi 외(2019)의 연구에서 취업모가 일-가정 갈등을 지속적으로 경험하였을 때 아동의 문제행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결과와 일치한다[49]. 이러한 결과는 모의 일-가정 갈등은 갈등 문제를 넘어 자녀의 성장과 사회화와 연관시켜서 고려할 필요가 있고, 모의 일-가정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모의 전반적 행복감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모의 전반적 행복감은 아동의 학교적응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의 전반적 행복감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학교적응 수준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생활전반에 만족도와 행복감 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인식을 하게 되며, 이는 자녀에게 영향을 주어 긍정적인 대인관계 및 문제해결방식을 습득함으로써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한 김지현 외(2011)의 연구결과와 맥을 함께한다[64]. 따라서 아동의 학교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적극적 개발 및 보급이 절실히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국가적·정책적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아동의 문제행동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아동의 문제행동은 아동의 학교적응에 유의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문제행동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학교적응 수준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문제행동이 전반적인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71-73]. 따라서 아동의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부모와 교사는 아동의 문제행동을 중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아동들에게 개별적이고 세밀한 이해를 바탕으로 원활한 학교적응을 지원하는 올바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모의 일-가정 갈등과 아동의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모의 전반적 행복감과 아동의 문제행동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모의 일-가정 갈등과 아동의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모의 전반적 행복감과 아동의 문제행동은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의 일-가정 갈등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모의 전반적 행복감은 학교적응을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아동의 문제행동은 학교적응을 더 어렵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아동의 학교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모의 일-가정 갈등은 줄이고, 모의 전반적 행복감을 늘리어 모의 올바른 양육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의 정책이나 직장 내 지원 및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는 바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보면, 모의 일-가정 갈등은 아동의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지만, 문제행동을 통해 학교에 더욱 부적응하게 될 것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모의 일-가정 갈등으로 인한 부정적안 가정환경이 아동의 학교적응보다는 문제행동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침으로써, 문제행동으로 인해 아동이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특히 사회적 경제환경에 의하여 부모 모두가 맞벌이를 하고 있는 시대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의 양육에 대한 중요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며, 맞벌이 가정 혹은 모가 경제생활의 주(主)가 되는 가정의 경우 아동의 학교생활이 긍정적으로 형성 될 수 있는 사회적 지원과 학교에서의 체계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가정에서는 아동의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자녀 간의 갈등이 자녀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원인이 됨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자녀가 모와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 모 자신에 대한 내적 행복감과 아동의 문제행동이 긍정적으로 개선될 때 학교부적응 문제를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패널연구자료를 토대로 전국에서 표집한 대규모 데이터 분석을 통해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고찰함으로써 일반화 가능성을 높였으나, 횡단자료로 활용하여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인과관계에 관한 신중한 해석이 요구된다. 둘째로,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모의 일-가정 갈등, 모의 전반적 행복감, 아동의 문제행동, 아동의 학교적응은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변수들을 통제한 상황에서 주요 변수들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아버지를 포함, 맞벌이 부부의 상호 간의 영향력이 자녀 발달에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학령 초기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환경적 요인으로서 모의 일-가정 갈등, 모의 전반적 행복감, 아동의 문제행동에 주목하여 이러한 변인들이 학령 초기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학령 초기 아동의 학교적응을 향상시키고, 문제행동 감소를 돕는 상담 및 프로그램 개입의 방향 설정과 더불어 부모 상담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1] T.Y. Kwon, “The longitudinal effect of parental depressive symptoms on language development, problem behavior, and school adjustment in the first grade child”,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1, No.1, pp.338-348, 2020. DOI: http://dx.doi.org/10.5762/KAIS.2020.21.1.338

[2] H. J. Oh, H. S. Doh, “The effects of maternal childhood attachment and paternal involvement in child-rearing and maternal parenting efficacy on parenting behavior of mothers with infant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40, No.2, pp.115-129, 2019. DOI: http://dx.doi.org/10.5723/kjcs.2019.40.2.115

[3] M. S. Kwon,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peer attachment and best friend attachment on psychological adjustments of early adolescent*.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of Korea, 2022.

[4] G. J. Park, J. H. Kang, “ Difference in problem behaviors according to children’s temperament and mothers’ reaction type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in school-age children: Latent profile analysi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40, No.3, pp.314-329, 2021.

[5] K. C. Pears, H. K. Kim, D. Capaldi, D. C. Kerr, P. A. Fisher, “Father-child transmission of school adjustment: A prospective intergenerational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Vol.49, No.4, pp.792, 2013. DOI: http://dx.doi.org/10.1037/a0028543

[6] W. K. Kim , H. K. Kwon, “ Effects of psychological, socio-environmental, and mother parenting behavior factors on school adjustment in korean children”,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Vol.32, No.4, pp.1-19, 2019. DOI: http://dx.doi.org/10.35574/KJDP.2019.12.32.4.1

[7] M. G. Song, "A study on mediated effect of resilience between parenting attitude of parents perceived by higher graders of primary school and their problem-solving skill",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3, No.5, pp.522-532, 2022.
DOI: http://dx.doi.org/10.5762/KAIS.2022.23.5.522

[8] M. S. Kim, H. H. Chung, " Longitudinal relations among perceived interparental conflicts, student-teacher relationship, and depression in early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8, No.10, pp.549-575, 2021.
DOI: http://dx.doi.org/10.21509/KJYS.2021.10.28.10.549

[9] E. J. Bae, "The moderating effect of parental empathy on the effect of daily stress on school life adjustment in upper grade students in elementary school",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12, No.4, pp.219-233, 2021.
DOI: http://dx.doi.org/10.22143/HSS21.12.4.16

[10] J. H. Greenhaus, N. J. Beutell, "Sources of conflict between work and family role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10, No.1, pp.76-88, 1985.
DOI: http://dx.doi.org/10.5465/AMR.1985.4277352

[11] H. Y. Kim, H. I. You, "The effects of father's work-family role conflicts on the father's depression and parenting stres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mother's parenting stres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9, No.1, pp.19-40, 2019.
DOI: http://dx.doi.org/10.22251/jlcci.2019.19.1.19

[12] W. K. Lee, S. H. Rhee, M. J. Kim, S. J. Kim, "Employed mothers' work-family conflict and early school-age children's smartphone dependency: Depression and parenting behaviors as sequential mediator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41, No.2, pp.147-161, 2020.
DOI: http://dx.doi.org/10.5723/kjcs.2020.41.2.147

[13] M. S, Ha,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family conflict, parenting stress on dual-income couples, and the internalization-externalization of children: Application of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APIM)", *Asian Journal of Education*, Vol.19, No.3, pp.573-600, 2018.
DOI: http://dx.doi.org/10.15753/aje.2018.09.19.3.573

[14] Y. J. Jeong, G. Y. Jeon, "Relationship between perfectionism and parenting behavior of working mothers: Double mediating effects of work-family conflict and parenting guilt", *Human Ecology Research*, Vol.56, No.4, pp.377-390, 2018.
DOI: http://dx.doi.org/10.6115/fer.2018.027

[15] S. E. Heo, *The impact of perceived working mother's social support and parenting efficacy on parental role satisfaction.* Master's Thesis, Pukyung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2021.

[16] J. M. Ryu, N. N. Shin, "The effects of working mothers' separation anxiety, job satisfaction, and overprotective parenting behavior on preschoolers' separation anxiety", *Journal of Korean Child Care and Education*, Vol.14, No.1, pp.1-20, 2018.
DOI: http://dx.doi.org/10.14698/jkcce.2018.14.01.001

[17] Y. J. Hong, K.Y. Lee, "Identifying the typology of changes in work-family conflict among working mothers with an early school-age child and examining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Korean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Vol.14, No.1, pp.97-120, 2020.
DOI: http://dx.doi.org/10.5718/kcep.2020.14.1.97

[18] M. Slaski, S. Cartwright, "Health, performance and emotional intelligence: An exploratory study of retail managers", *Stress and Health: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Investigation of Stress*, Vol.18, No.2, pp.63-68, 2002.
DOI: http://dx.doi.org/10.1002/smi.926

[19] M. N. Bechtoldt, S. Rohrmann, I. E. De Pater, B. Beersma, "The primacy of perceiving: Emotion recognition buffers negative effects of emotional labor",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96, No.5, pp.1087, 2011.
DOI: http://dx.doi.org/10.1037/a0023683

[20] E. J. Hill, "Work-family facilitation and conflict, working fathers and mothers, work-family stressors and support", *Journal of Family issues*, Vol.26, No.6, pp.793-819, 2005.
DOI: http://dx.doi.org/10.1177/0192513X05277542

[21] U. Kinnunen, T. Feldt, S. Geurts, L. Pulkkinen, "Types of work-family interface: Well-being correlates of negative and positive spillover between work and family",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Vol.47, No.2, pp.149-162, 2006.
DOI: http://dx.doi.org/10.1111/j.1467-9450.2006.00502.x

[22] M. J. Yeo, T. S. Lee ,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 happiness and child self-esteem, the mediating effect of child school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8, No.7, pp.101-121, 2021.
DOI: http://dx.doi.org/10.21509/KJYS.2021.07.28.7.101

[23] H. S. Choi, "Differences in psychological adjustment of children and school involvement of mothers according to changes in of mother's subjective happines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2, No.10, pp.482-490, 2021.
DOI: http://dx.doi.org/10.5762/KAIS.2021.22.10.482

[24] K. K. Lee, Y. J. Kim, Y. K. Park, K. Y. Lee,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for mothers with elementary school children on educational support activities at home during COVID-19: The mediating effect of mothers' social competence",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pp.148-148, 2022.

[25] K. Byron, "A meta-analytic review of work-family conflict and its antece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67, No.2, pp.169-198, 2005.
DOI: http://dx.doi.org/10.1016/j.jvb.2004.08.009

[26] W. K. Lee, M. J. Kim, K. B. Yun, "Dual earner parents' work-family conflict, and its associations with warm

parenting and early school-aged children's problem behavior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39, No.3, pp.141-156, 2018.
DOI: http://dx.doi.org/10.5723/kjcs.2018.39.3.141

[27] H. Dinh, A. R. Cooklin, L. S. Leach, E. M. Westrupp, J. M. Nicholson, L. Strazdins, "Parents' transitions into and out of work-family conflict and children's mental health: Longitudinal influence via family functioning", *Social Science & Medicine*, Vol.194, pp.42-50, 2017.
DOI: http://dx.doi.org/10.1016/j.socscimed.2017.10.017

[28] S. K. Park, *The development and effects of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enhancing happiness applying reality therapy*. Doctoral Thesis, Hongik University of Korea, 2003.

[29] R. B. Diener, B. Dean, *Positive psychology coaching*. Seoul: Asiacoach, 2009.

[30] J. W. Lee, I. K. Cho, "The effects of school psychological environment, family environment and personal environment on children's happiness",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Vol.49, No.1, pp.39-59, 2018.
DOI: http://dx.doi.org/10.15854/jes.2018.3.49.1.39

[31] J. E. Russell, "Promoting subjective well-being at work",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Vol.16, No.1, pp.117-131, 2008.
DOI: http://dx.doi.org/10.1177/1069072707308142

[32] K. H. Cho, M. H. Do, "The effects of mothers' happinessand parenting stress on young children's self-esteem: The mediating role of parenting efficacy",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21, No.4, pp.725-744, 2016.
DOI: http://dx.doi.org/10.13049/kfwa.2016.21.4.6

[33] I. S. Ko, J. S. Lee, "Problematic behaviors in preschool: A socio-demographic analysis", *Human Ecology Research*, Vol.46, No.9, pp.33-45, 2008.

[34] Y. H. Shin, *Investigation on correlated factors of challenging behaviors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Doctoral Thesis, Daegu University of Korea, 2008.

[35] T. M. Achenbach, C. Edelbrock, "Child behavior checklist", *Burlington*, Vol.7, pp.371-392, 1991.

[36] M. Lynch, D. Cicchetti, "Children's relationships with adults and peers: An examination of elementary and junior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Vol.35, No.1, pp.81-99, 1997.
DOI: http://dx.doi.org/10.1016/S0022-4405(96)00031-3

[37] J. A. Han, *The progressive analysis of school adjustment in multicultural elementary school students*. Doctoral Thesis, Kyungsung University of Korea, 2009.

[38] H. J. Baek, "The effects of self control, self reliance, and attachment to teachers on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19, No.2, pp.357-373, 2007.

[39] H. S. Kim, D. G. Lee, B. H. Bae, "Influence of parental attachment on school adjustment as perceived by high school students: The moderating effect of adaptive defense mechanism",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13, No.6, pp.2641-2656, 2012.
DOI: http://dx.doi.org/10.15703/kjc.13.6.201212.2641

[40] S. K. Un,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school adjustment of bicultural children :Focused on moderating effect of family functioning*. Doctoral Thesis, Soongsil University of Korea, 2009.

[41] J. Y. Lee, K. A. Lee, "Individual and familial factors in relation to school adjustmen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16, No.2, pp.261-276, 2004.

[42] H. J. Kwon, M. Y. Sung, "The effects of children's self-esteem on their school adjustment: Focusing on the Mediation of Peer Attachment", *Human Ecology Research*, Vol.52, No.4, pp.395-403, 2014.
DOI: http://dx.doi.org/10.6115/fer.2014.034

[43] H. J. Lim, K. K. Kim, "The effect of after-school self-care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of dual-income families on students' adaptation in learning: Focusing on the mediator effect of teacher-student relationships", *The Korea Educational Review*, Vol.24, No.2, pp.223-251, 2018.
DOI: http://dx.doi.org/10.29318/KER.24.2.9

[44] Y. M. Kim, Y. K. Cho, "Comparison on child raising difficulties and support needs of mothers having infants and toddlers in child care and education centers: Based on mothers with and without jobs",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ucare Welfare*, Vol.22, No.3, pp.145-171, 2018.
DOI: http://dx.doi.org/10.22590/ecee.2018.22.3.145

[45] S. J. Shin,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responses to DAPR(Draw-A-Person-in-the-rain) assessment based on the level of parenting stress and ego-resilience of working mothers*.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of Korea, 2017.

[46] M. K. Park, H. J. Oh, "The impacts of working mothers' democratic child rearing practice on children's adjustment to school life: mediating effects of community spirit",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6, No.12, pp.249-270, 2016.
DOI: http://dx.doi.org/10.22251/jlcci.2016.16.12.249

[47] J. N. Chung, "Factors affecting school adaptation of first-grade elementary school children of working mother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Vol.28, No.3, pp.185-199, 2019.
DOI: http://dx.doi.org/10.5934/kjhe.2019.28.3.185

[48] J. H. Lee, D. W. Kim, "Effects of mother's employment and work-rearing conflict on elementary school adaptation after kindergarten",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Vol.24, No.3, pp.263-283, 2020.
DOI: http://dx.doi.org/10.32349/ECERR.2020.6.24.3.263

[49] A. Vahedi, I. Krug, E. M. Westrupp, "Crossover of parents' work-family conflict to family functioning and child mental health",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Vol.62, pp.38-49, 2019.
DOI: http://dx.doi.org/10.1016/j.appdev.2019.01.001

[50] E. M. Yeon, H. S. Choi,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ain and strain of parents` work-family reconciliation, parenting efficacy and children's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and school adjustment",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9, No.6, pp.261-285, 2019.
DOI: http://dx.doi.org/10.22251/jlcci.2019.19.6.261

[51] E. H. Lee, "An integrated model of work and family conflict: Relationships with preceding variables and outcome variables",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Vol.19, No.2, pp.1-42, 2000.

[52] C. A. Higgins, L. E. Duxbury, R. H. Irving, "Work-family conflict in the dual-career family",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Vol.51, No.1, pp.51-75, 1992.
DOI: http://dx.doi.org/10.1016/0749-5978(92)90004-q

[53] M. R. Frone, M. Russell, M. L. Cooper, "Antecedents and outcomes of work-family conflict: Testing a model of the work-family interfa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77, No.1, pp.65-81, 1992.
DOI: http://dx.doi.org/10.1037/0021-9010.77.1.65

[54] N. Bolger, A. DeLongis, R. C. Kessler, E. Wethington, *The microstructure of daily role-related stress in married couples. In J. Eckenrode & S. Gore (Eds.), Stress between work and family.* New York: Plenum Press, 1990.

[55] P. Moen, *Working parents: Transformations in gender roles and public policies in Sweden*. Univ of Wisconsin Press, 1989.

[56] J. W. Shin, *Effects of working women's work/family conflict, emotional inelligence, and emotional labor on happiness.* Master's Thesi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2012.

[57] S. Olowodunoye, "Work-family conflic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he moderating impact of job motivation", *Journal of Research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9, No.8, pp.1-6, 2021.

[58] S. M. Lee, S. H. Lee, "The quality of multiple roles and psychological health of employed mother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Vol.15, No.3, pp.67-90, 2010.

[59] L. S. Leach, H. Dinh, A. Cooklin, J. M. Nicholson, L. Strazdins, "Australian parents' work–family conflict: Accumulated effects on children's family environment and mental health",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Vol.56, No.4, pp.571-581, 2021.

[60] K. S. Yang, "The effect of a mother`s employment and children self-conception on the behavior problem". *The Korean Journal Child Education*, Vol.11, No.2, pp.87-98, 2002.

[61] J. H. Wang, I. H. Song, "Elementary schoolers'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working mothers' job stress and dysfunctional communication",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Vol.23, pp.205-227, 2012.

[62] A. C. Crouter, M. F. Bumpus, "Linking parents' work stress to children's and adolescents' psychological adjustment",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Vol.10, No.5, pp.156-159, 2001.
DOI: http://dx.doi.org/10.1111/1467-8721.00138

[63] S. H. Lee , H. S. Doh, "Job satisfaction and parenting behavior of working mothers and childrens' problem behavior",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28, No.5, pp.269-284, 2007.

[64] J. H. Kim, H. S. Doh, N. N. Shin, M. J. Kim, "The mediating roles of mothers' psychological well-being and support/control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child-related stress and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Families and Better Life*, Vol.29, No.4, pp.217-232, 2011.

[65] M. R. Song, J. W. Kim, "Effect of parents' psychological well-bing of low-income family on children's school adjustment : Focused on dream-start participants",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 & Rights*, Vol.18, No.2, pp.197-221, 2014.

[66] A. Bandura, *Social learning theory*. Seoul: JoongAng Aptitude, 1984.

[67] S. C. Kim, K. J. Kwak, " The investigation on the school adjustment of the children in the first grade: Short-term and longitudinal approach",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Vol.23, No.2, pp.19-37, 2010.

[68] C. J. Chang, H. W. Ya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bout parents-child relationship, children's depression, aggression, and school adjustment", *Studies on Korean Youth*, Vol.18, No.2, pp.5-29, 2007.

[69] G. J. Duncan, C. J. Dowsett, A. Claessens, K. Magnuson, A. C. Huston, P. Klebanov, C. Japel, "School readiness and later achieve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Vol.43, No.6, pp.1428-1446, 2007.
DOI: http://dx.doi.org/10.1037/0012-1649.43.6.1428

[70] S. Y. Park, J. H. Kang, "The relations between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aggression and school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26, No.1, pp.1-14, 2005.

[71] J. H. Kum, C. H. Son, S. E. Chae, S. G. Kang, "Middle school students' school-adjusment, and the relation with family and individual characteristic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0, No.2, pp.119-143, 2013.

[72] J. A. Lee, S. N. Choi, Y. K. Moon, "Longitudinal developmental paths of children's school adjustment in the first grade of elementary school: The effects of preschooler's external problem behaviors at age 6 and mother's accumulated parenting stress", *The Korea Association of Child Care and Education*, No. 124, pp.67-92, 2020.
DOI: http://dx.doi.org/10.37918/kce.2020.09.124.67

[73] Y. H. Park , "Role of self-regulation in the relations among media use, emotional-behavioral problems, and

school adjustment for middle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28, No.4, pp.691-710, 2014.

[74] Y. R. Woo, C. R. Nho, "Mediating effects of sense of community solidarity between emotional and aggressive problems and school adjustments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Vol.16, No.2, pp.203-227, 2014.

[75] K. I. Choi, "Mediating effect of youth's self protective factor in the relation between depression and adaptation to school life", *GRI Review*, Vol.14, No.3, pp.170-189, 2012.

[76]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https://panel.kicce.re.kr/pskc/module/rawDataManage/index.do?menu_idx=56, 2018.

[77] N. L. Marshall, R. C. Barnett, "Work-family strains and gains among two-earner couple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21, No.1, pp.64-78, 1993. DOI:http://dx.doi.org/10.1002/1520-6629(199301)21:1〈64::AID-JCOP2290210108〉3.0.CO;2-P

[78] B. S. Min, *The effects of school life adjustment and self-concept on academic achievement*.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of Korea, 1991.

[79] S. Lyubomirsky, H. S. Lepper, "A measure of subjective happiness: Preliminary reliability and construct valida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46, pp.137-155, 1999. DOI: http://dx.doi.org/10.1023/A:1006824100041

[80] K. J. Oh, Y. A. Kim, *Child/Adolescent Behavior Assessment Scale Manual*. Seoul: Huno, 2010.

[81] H. S. Lee,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and AMOS 24*. Seoul: Jibhyeonjae, 2017.

[82] S. H. Hong, S. Jung , "Testing the interaction effects in regression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s: Theories and procedures",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Vol.21, No.4, pp.1-24, 2014. DOI: http://dx.doi.org/10.15284/kjhd.2014.21.4.1

[83] R. M. Baron, D. A. Kenny,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1, No.6, pp.1173, 1986. DOI: http://dx.doi.org/10.1037/0022-3514.51.6.1173

[84] S. R. Park, Y. J. Hong, K. Y. Lee, "Effects of the work and child-education conflict of working mothers having a child in a second grade on their school adjustment: The mediating effects of parenting competence and educational support activities at home",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Vol.27, No.3, pp.165-184, 2020. DOI: http://dx.doi.org/10.15284/kjhd.2020.27.3.165

김 영 경(Kim-Young Kyoung) [정회원]

- 2013년 11월 ~ 2021년 3월 : 간호직 공무원 근무
- 2021년 3월 ~ 현재 :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박사과정

〈관심분야〉
정신간호, 아동간호, 가족상담, 여성간호